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십이사도성당 - 테살로니카(그리스)

† 오늘의 전례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루카 20,27-38 참조)

역경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친하게 지내지만 막상 힘든 일이 닥치면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적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아니 죽음을 넘어서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제1독서 마카 7,1-2,9-14

제2독서 2테살 2,16-3,5

복음 루카 20,27-38

입당송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화답송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그게 다가 아니라...



황영삼 마태오 신부 | 1대리구 청년담당

오늘 복음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와 예수님이 별이는 부활논쟁입니다. 사두가이파는 기원전 2세기부터 유대인들의 파벌 중 하나로 생겨났습니다. 대부분이 귀족 출신의 부유한 기득권층으로 구성되었고 또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협조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의 행동의 결과로 얻어진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가장 중요했고,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변화를 거부해야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중요했던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다가 아닌데 그 것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올해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중학생은 고등학교라는 문을 넘어야 하고, 고등학생들은 대학교라는 문을 넘어야 합니다. 이 두 번의 입시로 부모들 역시 좋은 과외, 인기 있는 학원, 아이의 성적과 대학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같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참 좋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시험을 치고 아이가

집을 떠나 타향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면 더 이상 함께 고민할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우리 아이가 19살이라는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함께 살지도 않고 속속들이 알 수도 없는, 또 부모인 나를 그다지 걱정하며 살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방학 때가 오면 그나마 성당이라도 함께 다녀 보려고 애를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왔던 탓입니다.

오늘 1독서 마카베오서에서 한 어머니가 눈앞에서 일곱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돼지고기 한 점 먹어보라는 박해자들 앞에서 하느님과 약속이니 그럴 수 없다고, 차라리 죽겠다고 버티는 아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당당히 죽음에 맞서라고 했던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라고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중요한 많은 일들 앞에서 충실히 대처해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기에 소중한 것을 먼저 지켜낼 수 있는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빛**



신앙의 해 교리 퀴즈 29



‘주님의 기도’는 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청원이 다 들어 있고, 또 바른 순서로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는 모두 몇 가지의 청원이 들어 있을까요?



()가지 (가톨릭교회교리서 2759항 참조)

이 코너를 오래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

문화홍보실



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 번 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총의 선물에 감사드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기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서 『믿음의 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신앙의 은총을 기억하도록”(8항)이라 지적하며,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세례 받는 예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은 그 신앙을 받고 또 고백하였으니,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안에 늘 간직하여야 합니다. 잠자리에서도 반복하고, 저장거리에서도 떠올리며, 식사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9항)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또한 공공연한 증언, 즉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믿음을 말로, 또 행동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인은 결코 믿음을 사적인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10항)

신앙의 해를 여시면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전 세계의 주교좌성당과 본당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수도회와 본당 공동체, 그리고 모든 교회 단체는 이 신앙의 해에 공적으로 신앙 고백(Credo)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서 『믿음의 문』 8항). 교황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 교구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사성제나 견진 성사와 같은 전례의 기회와 신심 단체나 사도직 단체의 모임 때에 ‘신앙의 해’를 염두에 두고 믿음을 드러내어 들어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온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오는 11월 24일에 주교좌성당을 비롯한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는 신앙의 해를 폐막하면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또 한 차례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이로써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이므로, 이제 신앙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숨어서 마음속으로만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신앙이 사회생활과는 무관한 사생활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가능하다면 우리 신앙 선조들은 순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우리 마음에 새긴 신앙은 남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고 세상에 다시 없이 귀한 보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유한 보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 보물이 내는 천상의 빛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또 밖으로 번져 나와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

뭘 사야 평생 행복할까?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주교대리

한 유통업자가 “정말 웃기는 일도 있었다.”며 한 얘기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다. 프랑스에서 1만원 안팎의 여성 속옷을 수입해서 백화점에서 2~3만원의 가격표를 붙여 팔았지만 팔리지가 않았다. 생각 끝에 매장을 조금 바꿔서 가격을 15만~2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자 수입한 물량은 일주일 만에 동나고 말았다고 했다. ‘정말 웃기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왜 이런 ‘웃기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떤 열심한 신자가 한 말이다. “신부님, 다른 사람 입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면 내 입에도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다. 다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처럼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남들만큼 소비하지 못하면 남들만큼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소비, 즉 과시적 소비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행복할 거야.’라고 느끼고 있다.”(매일신문 2011/4/23)

이런 세속적인 논리를 따라가면 과소비가 곧 행복이라는 말이다. 옷을 사면 일 주일, 차를 사면 한 달, 집을 사면 일 년 간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만 행복해서도 안 되고, 한 달만 행복해서도 안 되고, 일 년만 행복해서도 안 된다. 평생 동안 행복해야 한다. 매일매일 행복하기 위해서 매일 옷을 살 수도 없고 매달 차를 살 수도 없고 매년 집을 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사야 할 것인가? “뭘 사야 평생 행복할까?”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남자 나이 60세가 넘으면 꼭 필요한 게 건강, 아내, 재산, 취미, 친구라고

한다. 반면 60세가 넘은 여자에게는 재산, 친구, 건강, 애견, 남편의 순서라 한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도 있다. 나이 들어가는 여자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 딸, 돈, 건강, 친구, 짐질방이지만, 나이 들어가는 남자에게 있어야 할 꼭 필요한 것이 마누라, 아내, 애들 엄마, 집사람, 와이프라는 것이다.” 이것도 정말 웃기는 말이다. 무엇이 있어야 나이가 들면서 행복하고 더 나아가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야 한다. 우리는 평생 행복해서도 안 된다. 평생 동안만 행복하고 행복은 죽음으로 끝장 나버린다. 그러면 그 행복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내가 죽고 나면 그것들은 모두 의미를 잃어버린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나의 행복을 해치는 경우도 많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1코린 3,18-20) 참으로 행복한 사람! 평생 행복한 사람!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시편 1,1-3) **궤약**



이 세상은 나 혼자 아니다!

서울 서초동 소년 법정.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해 나지막이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서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따라 하라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윽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음으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귀가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

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결속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꼭 뺨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용서란 희망의 또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음으로 내 몬 우리들을 용서하십시오으로써 부활이란 희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필름**

금주의 성인



성 요세팻 쿤체빅 주교 순교자(11월 12일)

‘일치의 사도’로 불리는 요세팻 성인께서는 우크라이나의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상인으로서의 가업을 포기하고 바실리오회 수도원에 들어가 비잔틴 전례(정교회 전례)에 따라 동방교회의 사제가 되었다. 성인께서는 플로츠크 교구의 대주교가 되시어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시고 혼란에 빠진 러시아 교회 개혁에 헌신하시다가 반대파인 이교도들에 의해 도끼와 총탄으로 살해되었다. 비오 9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신 성인께서는 동방교회의 주교로서는 최초로 서방교회의 성인이 되신 분이시다.



■ 군위묘원 성직자 묘역 및 성모의 정원(봉안담) 축복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위령의 날인 11월 2일(토) 오전 11시 가톨릭군위묘원(담당 : 장영일 그리스산도 신부)에서 위령의 날 미사를 봉헌하시고, 성직자 묘역 및 성모의 정원(봉안담) 축복식을 주례하셨다.



■ 주요 소식

- ▷ 원동수 신부 그림 전시회 『가난한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신암본당 세번째 자선 바자회, 기간: 1.24(금)~2.1(토), 장소: 신암성당 지하 강당
다음 카페: 갤러리 빛과 색(화환은 자선금으로 부탁드립니다.)
-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동서의학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원의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암 등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침 치료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소정의 교통비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53)650-3137, 3133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전시회 및 최종 결선 시상

•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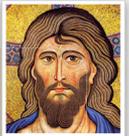
일시: 2013년 11월 15일(금)~19일(화) | 장소: 교구청 내 한옥(안익사)

• 영성사진 콘테스트 최종 결선시상

일시: 2013년 11월 20일(수) 11:00 | 장소: 교구청 본관 2층 대회의실

시상내역: 최우수상(1명): 상패 및 상금 100만 원

우수상(2명): 상패 및 상금 50만 원 | 장려상(3명): 상패 및 상금 30만 원



2012
2013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29주일(10월 20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다섯>입니다.

당첨자 : 하희정(마리아, 본리), 이남희(말지나, 성정하상), 김태희(로사, 연일),

남후섭(아우구스티노, 상인), 김선미(리따, 이곡)

슬퍼하지 않아요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1일(월) 11:00 계산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11월 11일(월) 20:00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1일(월) 11:00 월성성당	포항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1월 13일(수) 19:00 장량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1일(월) 11:00 성건성당	노동자를 위한 미사	11월 15일(금) 19:30 가톨릭근로자회관 2층 소강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1일(월) 11:00 신명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6일(토) 10:00 월성성당
2대리구 성소를 위한 기도모임	11월 11일(월) 11:30 범어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1월 16일(토) 11:00 성모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를 위한 미사	11월 11일(월) 19:00 성동성당	-	-

성소 | 피정

성빈센트드벨자비의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1.17(일) 14:00, 수원본원
문의: (010)8833-8107

앗숨 기도 모임
일시: 매주 월 19:30~21:00
대상: 18~35세 미혼여성
(저녁식사, 성경기도, 나눔)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2649-2045

315차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기간: 12.13(금)~15(일),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 ME,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 전례 피정
기간: 12.23(월) 16:00~25(수) 13:00
장소: 왜관성베네딕도 피정의 집
참가비: 12만 원, 세면도구 지참
농협)301-0087-0776-61
문의: (054)971-0722

교육 | 모집

**14학년도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1.4(월)~22(금)
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문의: 850-3505

2014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일반 및 특수대학원
(창조융합, 상담대학원 신설)
접수기간: 11.4(월)~18(월)
문의: 850-3637(일반) / 660-5512(특수)
<http://www.cu.ac.kr>

오순절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0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물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김마리아, (010)5529-3186

**대구광역시지원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미용자격증 취득반**
기간: 10월~12월(주 5회)

장소: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대상: 소외계층(전화상담)
수강료: 무료(재료비 별도)

수도생활 체험학교(노장년층)
기간: 12.29(일) 16:00~31(화) 13:30
장소: 왜관피정의집
대상: 45~75세, 세면도구
참가비: 8만 원, 국민 608001-04-116050
예금주: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54)971-0722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11.15(금) 17:30~17(일)
4박 5일: 12. 2(월) 14:00~6(금)
8박 9일: 11.18(월) 14:00~26(화)
에니어그램: 12.7(토) 15:30~8(일)
문의: 성심수녀회, (031)946-2337~8

가톨릭상지대 원격평생교육원 교양생 모집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원격 수업)
개강: 11.14(목)
모집분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문의: 1577-0361(www.cec.or.kr)

철국 박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어지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전문의/원장 박 규 옥(바오로)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www.gabimaru.co.kr
가비마루 커피
김재창(프란치스코) 이정숙(베네딕타)
특허진공티백 100%원두커피
본당 수익사업 상담환영
1588-3646 / 053)584-0404

30년 전통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 • 치매 조기진단
• MRI, CT, 위/대장 내시경
• 건강보험검진, 공무원종합검진
대표전화 053) 652-2525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자부심
업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품격높은 비즈니스 모임, 격조높은 최고의 상견례 명소
CHINESE RESTAURANT
중화요리
자금상
대표 :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예약 (053)767-6700 대구 수성구 황금동 LG전원 빌

소변에 거품이 나십니까?
수내과
[부설 :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진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백내장수술은
사랑의시작입니다.**
의학박사
현, 연세대의학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053.626-8881-5

**강남 피아노
종합악기할인점**
중고피아노 고가 매입
조율, 운반, 수리, 매매
☎ 010-3541-8194
053)423-7009
김갑봉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행사 | 모임

11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20(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11월 가나강좌

일시: 11.17(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대구가톨릭문인회 시낭송회 개최

일시: 11.14(목) 18:30

장소: 대명동 앞산 밑 북카페

여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 전시회

일시: 11.15(금)~19(화)

장소: 교구청 내 한옥(안익사)

교육 | 모임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11.27(수) 13:30~16: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5천 원

주제: 경쟁사회에서 청소년의 인성과 소통

강사: 차상은(대가대대학원 외래교수)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정평위 '함께꿈' 월레미사 및 특강

일시: 11.13(수) 19:30, 1대리구청 강당

주제: 아이들을 위한 참 교육

강사: 광노현 교수(전 서울시 교육감)

주최: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특강

일시: 11.23(토) 10:00,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구약성경의 올바른 이해 / 5천 원

강사: 송재준(마르코) 신부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성요셉요양병원(구,논공가톨릭)영성치유

거동이 불편하신 교우분들을 정성

으로 보살펴 드립니다. 장효원 요셉

신부님과 매일미사를 봉헌하며 영

성치료를 느껴보세요.

상담: 이범수, (010)6302-2409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1(월)~14.2.7(금)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http://ci.catholic.ac.kr>

채용 | 안내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손은영(레아), 원정환(안드레아),

문지환(안드레아), 김정화, 김혜영(리디아)

교구청 사제관 영양실 직원 채용

기간: 11.10(일)~20(수)

자격: 35~55세 이하의 신자(여)

문의: (010)9206-3224

2014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4년도 대구주보에 게재될 광고는 순번추첨방식을 통해 접수합니다. (대기 번호표는 없음) 순번추첨은 1·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1차 추첨**은 사전서류접수 기간 내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신 업체에 한해 진행합니다.
1차 순번추첨 일시: 11.25(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사전서류접수 기간: 11.4(월)~11.19(화),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2차 추첨**은 추첨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신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차 순번추첨 일시: 11.25(월) 13:00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님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비는 전액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접수일부터 익일까지)

업주가 냉담자이거나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범어네거리 (752-0141)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원장 채희갑 (바오로)

치질·내시경

통
하루
통진료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신경동 대우이피트 임

신원안병원
www.hangmuns.com 959-7175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7484-3355

본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주)본도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
본도석유 / 주유소

난방유 대구전지역 배달
080-003-5189 (무료전화)
T. 656-2500, 425-7835

사회적기업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전문

합동 감정 사무소

대표 박수원(스테파노)
대구 MBC 네거리 문화웨딩 맞은편 3층
☎ (053)753-4972 / 010-3651-4972